

전일동향

전일대비 2.70원 하락한 1,466.50원에 마감

11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2.70원 하락한 1,466.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80원 상승한 1,474.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데 하락 압력 받으며 1,466.50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1.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22.43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74.00	1478.30	1463.10	1466.50	1467.30
엔화	929.53	932.30	922.28	922.43	-	
유로화	1705.89	1713.03	1695.27	1695.96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95	-3.99	-9.19
결제환율(수입)		-0.53	-2.59	-7.05	-13.2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글로벌 강달러에...1,47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6.50) 대비 13.10원 상승한 1,478.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강달러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상승 전망한다. 한국을 비롯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의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이 피격당했다는 소식이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란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의 고위관계자들의 발언도 강경하게 바뀌고 있어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가 확대되는 분위기에 WTI 국제유가는 전일 대비 5.98% 상승한 배럴당 88.44달러에 거래되며 달러 강세를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까지 더해지면서, 금일 환율은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간밤 발표된 2월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으나 이란 공습 전의 결과라는 한계 탓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결국 오늘도 시장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에 따른 유가 향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및 중공업체 고점매도 물량 출회와 당국 미세조정 경계감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75.00 ~ 1485.75 원
----------------------	----------------------------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562.5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3.10원 ↑
	■ 美 다우지수 : 47417.27, -289.24p(-0.6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5.2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599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